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재난빈발로 농업보험 유명무실

□ 중국 서남부 지역에 7개월 넘게 비가 내리지 않는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자 이들 지역의 농업보험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음.

- 1950~2006년까지 가뭄 피해로 사라진 양식만 8,781억톤에 이르고 있으며, 이는 전체 재해의 68.4%에 해당하는 수치임.
-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국영 보험회사인 중국인민보험의 농업보험 보장 금액은 2007~2009년 각각 678억 위안, 1,446억 위안, 2,576억 위안 등으로 해마다 보장금액이 증가했으나 지급액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임.
- 보험회사와 정부 간 농업보험 협력 모델은 주로 ① 순수 상업보험 형태 ② 상업보험이 주가 되고 정부가 보조해 주는 형태, ③ 상업보험과 정부의 공동 보장 형태이나 보험회사들은 높아진 위험률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③번 운용 형태를 선호하고 있음.

□ 손해보험업계는 재난보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재난보험기금 조성 등 정부의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임.

- 대형 재난 발생 시 직접적인 관련 당사자인 손해보험업계는 대형 재난보험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 보조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재난보험기금 조성, 농촌 소액대출 시 농민의 보험계약서 담보 인정과 같은 제도적 융통성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.
- 또한 업무 혁신이 결여된 농업재보험의 독점 체제 지속으로 2004년 이후 6년간 중국재보험그룹이 수용한 농업보험 보장금액이 1,200억 위안에 불과한 사실에서 보듯이 재보험을 통한 위험분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임.

(21세기경제보도, 5/3)